

총장-뉴스레터 – 74 (2024-2-16) 출 16 장 1 절-13 절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1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었으므로 출애굽하여 신 광야에 도착하기까지는 꼭 1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 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였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때에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낙원과 같은 엘림 오아시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 여러가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다.

고기와 떡 맛을 떠올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한 것보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뿐 하였다는 원망과 이럴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였다. 그러나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좋았던 시절로 회상하는 이러한 말들과는 달리 애굽에서 강제 노동의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기 가마 옆에 편하게 앉아 있던 때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는 것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이 더 낫다고 하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 광야에서 첫번째 어려움에 부딪친 백성은 이전과 같이 비난을 되풀이함으로써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을 드러낸다.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안락을 위해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를 표현하는 속담이 되었다.

메추라기를 먹이심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한 듯하고 부수적으로만 언급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배고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당장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인도로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여호와께서 진정 그들의 영육을 향구적으로 충족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기근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금번의 양식 공급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당신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 역시 결국 여호와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만나를 먹이심

'아침에 여호와와 영광을 보리라' 는 본문의 말씀은 아침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현상이 바로 만나의 생성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만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되어 나타난 현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만나의 생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어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단지 육적 만족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는 신앙의 성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여 준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란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신 예수님께서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기

'저녁에는...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16:8)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라고 애굽에서의 시절을 과장되게 말하며 원망을 토로한 것에 대해 그러한 풍족한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알맞을 만큼만 주신다. 내일 다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대비하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